

## 미 증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업종 차별화 속 보험권 혼조 마감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 미 증시 동향

•미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소식으로 부진하기도 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험권 등락을 보임. 한편,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개별 기업들의 실적 결과와 투자의견 조정 등으로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된 점도 특징. 반도체와 에너지, 자동차가 부진한 반면, 대형 기술주,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가 강세(다우 +0.26%, 나스닥 -0.03%, S&P500 -0.07%, 러셀2000 -1.12%)

### 특이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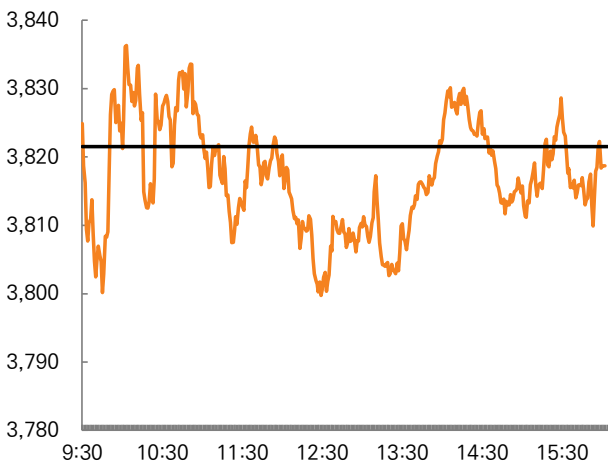
•마이크론(-3.18%)은 씨티그룹이 D램 가격 하락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실적 추정치 및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이 여파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0% 하락. 테슬라(-1.79%)는 자율주행 관련 직원 해고 소식에 한 때 4.5% 하락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 축소 마감. 반면, 애플(+1.30%)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이는 MS(+1.47%), 아마존(+1.42%) 등 대형 기술주의 상승 요인 중 하나. 특히 아마존은 JP모건이 이미 매크로 환경이 주가에 반영되었다며 투자의견을 ‘비중확대’ 로 재 확인한 점도 강세 요인

### 한국 증시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1.54%, MSCI 신흥 지수 ETF는 0.4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1.2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8%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미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장중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0% 하락한 점은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요인. 한편, 달러화가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강세를 보여 원화의 약세가 불가피한데 달러/원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투자심리 위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외환 시장에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이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 후 달러/원 환율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77.99	-1.82	상해종합	3,361.52	-1.40
KOSDAQ	762.35	-0.93	홍콩항생	21,996.89	-1.88
DOW	31,029.31	+0.27	베트남	1,218.09	-0.00
NASDAQ	11,177.89	-0.03	유로스톡스 50	3,514.32	-0.99
S&P 500	3,818.83	-0.07	영국	7,312.32	-0.15
캐나다	19,078.64	-0.75	독일	13,003.35	-1.73
일본	26,804.60	-0.91	프랑스	6,031.48	-0.9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 위축된 투자 심리와 실적 시즌

미국 1분기 GDP 확정치가 -1.6%로 발표되었는데 특히 개인소비지출이 연율 3.1%에서 1.8%로 하향 조정된 영향이 컸음. 이는 1분기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과 정부 지출 축소에 따른 것으로 추정돼 연속성이 제한적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음. 실제 4월에는 소비지출이 빠르게 늘어 2분기에는 회복된 것으로 추정

미국 6월 스테이츠 스트리트 신뢰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97.2를 하회한 94.6으로 발표돼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 57.6으로 10.6p 하락한 유럽의 영향이 컸는데 그 외 북미 지역은 2.5p 하락한 97.1, 아시아 지역은 4.8p 하락한 88.8p를 기록. 대체로 기관 투자자들은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안전 자산 비중을 확대

파월 연준의장은 유럽 중앙은행(ECB)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베일리 BOE 총재, 라가르드 ECB 총재 등과 의견을 교환. 이곳에서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경로가 있으나 강력한 노동시장과 함께 가기에는 그 경로가 더 좁아졌다고 우려를 표명. 더불어 여전히 미국 경제가 긴축을 버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나 필요 이상으로 둔화될 위험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최근 상, 하원 청문회에서의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던 것에 비해 위축된 모습을 보인 점이 특징

한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3.18%)에 대해 씨티그룹이 D램 가격이 내년 1분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실적 전망치와 목표주가를 하향하자 반도체 업종 내 대부분 종목이 하락.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생산량 관리에 나서고 있고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D램 가격 하락이 종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 향후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 가능성에 대한 기대 심리도 공존

애플(+1.30%)의 상승도 특징. 상하이 봉쇄로 인해 아이폰 제조 공장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으나, 이 문제가 이미 생산 전망에 반영되어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을 견인. 더불어 경기 침체로 아이폰 교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일부 문제일 뿐 수요는 여전히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긍정적. 결국 경기 침체 시기에도 충성 고객이 많은 기업의 경우 실적은 견고할 수 있음을 의미해 대형 기술주의 강세를 견인

대체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는 있으나, 실적 시즌을 앞두고 개별 기업과 업종의 실적 전망에 주목하며 업종 차별화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0%

마이크론(-3.18%)은 씨티그룹이 D램 가격 하락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실적 추정치 및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엔비디아(-2.75%), AMD(-3.45%) 등과 더불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0% 하락. 엑스모빌(-3.70%), 코노코필립스(-3.95%) 등 에너지 업종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과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 캐터필라(-2.11%), 디어(-2.40%) 등 기계업종은 경기 침체 우려 속 매출 출회되며 하락. 테슬라(-1.79%)는 자율주행 관련 직원 해고 소식에 한 때 4.5% 하락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 축소 마감

애플(+1.30%)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이는 MS(+1.47%), 아마존(+1.42%) 등 대형 기술주의 상승 요인 중 하나. 특히 아마존은 JP 모건이 이미 매크로 환경이 주가에 반영되었다며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 로 재 확인한 점도 강세 요인. 제너럴 밀스(+6.35%)는 견고한 실적 발표로 상승. 자동차 부품회사인 오릴리 오토모티브(+1.05%)는 경기 둔화로 부품 수요가 높으며 투자의견 상향 조정되자 강세. 오토존(+0.69%)도 동반 상승 했으며 주택 인테리어 용품 업체인 홈디포(+1.38%) 등도 강세. 맥도날드(+2.02%)는 소비지출 둔화 시기에도 견고한 매출이 기대된다며 비중 확대 의견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5.28	대형 가치주 ETF (IVE)	-0.41
에너지섹터 ETF (OIH)	-1.78	중형 가치주 ETF (IWS)	-0.77
소매업체 ETF (XLY)	-0.08	소형 가치주 ETF (IWN)	-1.13
온라인소매 ETF (EBIZ)	-0.98	대형 성장주 ETF (VUG)	+0.20
금융섹터 ETF (XLF)	-0.56	중형 성장주 ETF (IWP)	-0.64
기술섹터 ETF (XLK)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0.91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14	배당주 ETF (DVY)	-0.54
클라우드 ETF (CLOU)	-0.82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08
미국 리츠 ETF (VNQ)	-0.62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00%
주택건설업체 ETF (XHB)	-0.42	미국 국채 ETF (IEF)	+0.80
바이오섹터 ETF (IBB)	+0.54	하이일드 ETF (JNK)	-0.18
헬스케어 ETF (XLV)	+0.87	물가연동채 ETF (TIP)	-0.18
곡물 ETF (DBA)	+0.63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60
반도체 ETF (SMH)	-1.76	모멘텀 ETF (MTUM)	-0.33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헬스케어	1,499.32	+0.87	+3.37	-3.85
필수소비재	750.49	+0.49	+2.74	-3.52
통신	188.97	+0.27	+1.19	-5.87
IT	2,252.87	+0.20	+1.46	-8.80
유틸리티	352.58	+0.05	+4.66	-7.45
경기소비재	1,094.65	+0.01	+0.08	-8.82
산업재	736.35	-0.62	+0.88	-8.54
금융	528.01	-0.64	+1.27	-10.58
소재	468.91	-0.73	-0.13	-14.40
부동산	255.69	-0.76	+1.62	-8.75
에너지	557.60	-3.43	-0.38	-16.6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외환 시장 변화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1.54%, MSCI 신흥 지수 ETF는 0.4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01.2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38% 하락. KOSPI는 0.3%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 주요 경제지표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 특히 달러/원 환율이 1,300원에 근접하자 외국인 이 현/선물 매도를 단행하는 등 수급적인 부담도 지수 하락을 부추김. 특히 자동차 업종이 독일 검찰이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에 따른 압수수색 소식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개별 종목 이슈도 부정적인 요인. 이 여파로 KOSPI는 1.82%, KOSDAQ은 0.93% 하락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장중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마이크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0% 하락한 점은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요인. 그렇지만, 관련 우려가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하락은 제한된 가운데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반발 매수 심리가 높은 점은 긍정적. 특히 미 증시의 특징처럼 경기 둔화 등에도 견고한 실적이 예상되는 대형주 등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

한편, 달러화가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강세를 보여 원화의 약세가 불가피한데 달러/원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투자심리 위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외환 시장에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이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3% 내외 하락 출발 후 달러/원 환율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부진한 경제와 위축된 기관투자자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지난 수정치인 -1.5%나 예상치인 -1.4%를 하회한 전분기 대비 -1.6%를 기록. 특히 개인소비지출이 연율 3.1%에서 1.8%로 크게 하향 조정된 영향이 컸음. PCE 물가지수는 7.1% 상승해 수정치인 7.0%에서 상향 조정 되었으며 이는 지난 4분기 6.4%보다 상승. 이러한 위축은 1분기 오미크론과 정부 지출 축소에 따른 것으로 추정

미국 6월 스테이츠 스트리트 신뢰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97.2를 하회한 94.6으로 발표돼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이 더 많이 차지한 것으로 추정. 유럽이 10.6p 하락한 57.6으로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북미 지역은 2.5p 하락한 97.1, 아시아 지역은 4.8p 하락한 88.8를 기록



## 국제유가, 가솔린 재고 급증 여파로 하락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로 하락. 더 나아가 지난 주 원유재고가 280만 배럴 감소해 예상보다 감소폭이 더 컸으나, 가솔린 재고가 80만 배럴 감소 전망과 달리 260만 배럴 증가한 점도 하락 요인. 드라이빙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재고가 증가한 점은 결국 높은 가격에 따른 일부 수요 둔화를 의미하기 때문

달러화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임. 더불어 파월 연준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게 최우선 과제이며 이로 인한 경기 위축도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한 점도 영향. 파운드화는 베일리 BOE 총재가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하자 약세. 유로화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달러 대비 약세

국제금리는 부진한 경제지표 결과로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자 하락. 더 나아가 파월 연준의장이 지난 상, 하원 의회 청문회에 이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좀 더 조심스러운 어조로 언급한 점도 경기 침체 이슈를 자극하며 하락 지속. 한편, 단기 금리는 매파적인 연준위원들의 발언으로 장기물 대비 낙폭이 제한돼 미국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부각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에도 중국의 소비 증가 기대로 상승. 곡물은 미 농무부가 목요일 보고서를 통해 옥수수의 파종과 재고 증가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두와 밀의 파종 면적 감소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4%, 철근은 0.66% 상승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109.78	-2.08	+3.05	Dollar Index	105.101	+0.57	+0.87
브렌트유	116.26	-2.36	+3.10	EUR/USD	1.0441	-0.74	-1.18
천연가스	6.50	-2.16	-6.27	USD/JPY	136.65	+0.37	+0.29
금	1,817.50	-0.04	-0.98	GBP/USD	1.2120	-0.53	-1.19
은	20.74	-0.58	-3.47	USD/CHF	0.9550	-0.23	-0.65
알루미늄	2,471.00	-0.80	-0.34	AUD/USD	0.6883	-0.36	-0.64
전기동	8,401.00	+0.42	-4.24	USD/CAD	1.2892	+0.13	-0.42
아연	3,360.00	+0.81	-4.99	USD/RUB	52.2072	-1.84	-3.58
옥수수	653.75	-0.91	-5.84	USD/BRL	5.1905	-1.48	-0.09
밀	930.00	-0.45	-5.76	USD/CNH	6.7082	+0.09	-0.07
대두	1,478.25	+1.13	+0.17	USD/KRW	1,299.00	+1.22	+0.13
커피	228.25	+4.82	-3.45	USD/KRW NDF1M	1,301.28	+0.75	+0.3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097	-7.49	-5.95	스페인	2.591	-13.40	-12.60
한국	3.660	-2.50	-1.50	포르투갈	2.575	-12.90	-10.10
일본	0.236	-0.50	-1.00	그리스	3.671	-21.80	-20.20
독일	1.519	-10.90	-11.90	이탈리아	3.252	-15.80	-14.4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